

적개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우울증의 증상 2)

A부인의 깊은 우울증에 대해 계속 고찰해 보자.

여기에는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한다. 그녀의 친정어머니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 버린 친정아버지, 그리고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당사자 본인이다.

우선 기본 성격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모든 결정권을 아내에게 빼앗겨 버린 무능한(無能漢)으로, 기본적으로 의존성 성격 혹은 회피성 성격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에서 힘의 역동으로 볼 때 어찌면 그는 피동 공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항변해 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연히 집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내아들보다 못 했다.

어머니는 어떠한가? 매우 냉정하고 독심이 있으며 남편의 칭얼거리는 유아적(幼兒的) 행동을 과감하게 담금질하는 냉혈한의 기질이 두드러진다. 이런 편집적이고 냉담한 성격은 후일 자식들과도 심각한 충돌을 야기한다. 그녀는 딸들로부터 '남편 잡아먹은 여자'로 인식되자 더욱 냉정해지고 자식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상거래(商去來)수준으로 격하시키는데 전혀 주저함을 보이지 않는다.

A부인 본인은 어떠한가? 무능력한 주정꾼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다. 자칫하면 강력한 폭군 어머니의 눈 밖에 나서 자신의 위치까지 흔들려야만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술만 마시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나쁘다"라며 폭군 어머니의 주구(走狗)가 되어야 했다. 한편 강한 어머니의 추상같은 명령에 상징적인 복종의 의미로 그녀는 그렇게도 원하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서 여동생과 남동생을 모두 대학까지 마치게 하였다. 이것은 후일 그녀로 하여금 자신만의 고독감과 상실감을 배가시키게 하는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며, 늘 경멸하였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나머지 가족에 대한 강한 적개심의 활시위를 당기게 만든다.

자결로 인생을 마감한 아버지와 그의 유전적 특징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A부인과의 연관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전에 이미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유전적 소인과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대를 물려

A부인에게 전달되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녀의 아버지는 깨지기 쉬운 '사기 그릇'의 속성(屬性)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무거운 놋쇠 주발 같은' 어머니와 부딪히지만 앓았다면 끝까지 깨지지 않고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A부인이 아버지를 닮아 '사기 그릇'의 속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녀 역시 아버지처럼 '놋쇠 주발'같은 어머니와 부딪혀서 깨져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A부인은 아직도 적개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오락가락 방황한다. 이런 심리상태들은 습관적인 행동 유형을 만들어 정서적으로 고리가 연결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녀의 약한 자존심은 강박적으로 자신만의 아성(牙城)을 쌓고 남편과 자식,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칠 때까지 활을 쏘아댄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본 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런 연후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자신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turning against self).

A부인은 병이 좀 나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원래의 습성으로 돌아가 가학적이고 폭군의 이미지를 가진 어머니에게 잘 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러나 강한 폭군과 그의 추종자들은 나약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내포한 그녀를 은연중 경멸하고 평가절하한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유전적으로 강한 고리로 얽혀 있는 죽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늘 그의 곁으로 갈 것을 꿈꾸며 힘없이 산다.